

# 한우개량사업의 현황과 전망 (하)

이 문 연



한우개량부장

### 3. 한우산업의 전망

한우사육두수는 '96년도를 정점으로 180여만 두 선에서 감소세가 주춤 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뜻하지 않은 구제역 파동으로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얼마 남지 않은 쇠고기 완전개방에 불안해하는 한우농가에 수입쇠고기 전문점의 폐지와 수입보조금 중단에 대한 미국과 호주의 승소 소식은 가뜩이나 위축된 사육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러한 악재가 한우생산기반의 붕괴로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150만두도 지켜내지 못할까 염려된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두수의 감소로 인한 국내산 쇠고기의 공급물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수입개방에 의한 양질의 수입쇠고기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지금과 같은 한우산업 발전방향과 회복속도는 종전과 같은 한우사육두수의 회복을 기대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우번식기반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소규모 번식농가도 노령화로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번식기반의 붕괴현상을 우려하여 임신암소의 도축제한 등 다각적 방법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우송아지 생산농가의 불안심리를 잠재워야 한다. 둘째는 암소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의 상향조정과 다산장려금 등의 산차별 차등화 정책을 도입하고, 고급육 공급원의 차단에 따른 고급육 공급원인 수소의 거세를 적극 지원하는 양면작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도 최근의 고급육과 저급육의 현저한 차별화 현상은 한우고기의 고급화 차별화 정책에 다소나마 위안이 되지만 더욱더 한우고기의 품질차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우쇠고기의 차별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철저한 브랜드화에 의한 한우쇠고기 생산의 원료인 번식농가들이 생산하는 송아지의 질이다.

거의 비슷한 가격에 구입한 송아지들이 비육되어 출하된 도체경락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동일한 환경 조건, 예를 들면 동일한 우사, 사료 및 사양조건하에서도 최종산물인 도체경락가격은 육질과 육량에 따라 몇십 만원에서 몇백 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송아지 유전능력에 따른 차별화거래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청주 오창을 시작으로 앞서가는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개량된 혈통등록우 시장이 운영되면서 차례로 경남의 남해, 경남의 함안, 충남의 홍성 등이 뒤따라 등록우 시장을 개설한다는 소식은 한가닥 한우사육농가들의 한우종자 즉 송아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전환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한우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최근 시행되고있는 한우정액가격의 차별화 시행도 송아지 차별화거래에 틀림없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액가격의 차별화를 넓혀 한우번식농가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벌써처럼 한우도 고급육의 소재가 되는 송아지 즉 정액의 유전능력에 따라 한우고기 생산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호주가 WTO에 제소한 수입쇠고기 전문점의 폐지요구의 근본적인 대처방안도 개량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한우고기의 품질 차별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통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사육두수의 증가로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사육경영 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 절반의 두수로도 예전의 소득을 달성 할 수 있다. 번식농가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자질이 좋은 혈통의 송아지를 생산하고, 비육농가는 혈통에 기준하여 우수한 송아지를 구매하여 고급육을 생산하는 품질과 차별화를

기본으로 하는 지역별 권역별의 브랜드 한우고기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아직도 한우산업의 근간인 번식사업은 규모가 아주 적다.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풀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따라서, 한우번식농가의 전업화가 불가능한 우리의 현실에서, 번식사업의 지원사업인 송아지생산안정제, 다산우장려금지급제도 외에도 송아지 생산 확대를 위한 현실화된 지원책을 도입하여 경쟁력이 무한한 13두 소규모의 번식농가의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예를들면 한우개량 방향에 알맞은 밀소를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좋은 밀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가에게도 좋은 육질등급으로 소득을 보장받는 비육농가와 마찬가지로의 제도적 장치가 번식농가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문제점과 대책

한우산업의 발전방향은 고급육 차별화에 의한 권역별 지역별 브랜드화에 뿌리를 두고 모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번식부문의 전업화나 기업화는 여건상 불리하므로 고급육 차별화 정책의 수단인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번식농가의 집단화등 계획적인 육성으로 밀소의 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견해로부터 한우산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요약하여 본다.

▶첫째는 번식기반의 안정이다. 번식기반의 붕괴는 한우산업의 붕괴를 초래한다.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번식농가의 다두화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이 무한한 소규모의 부업번식농가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암소의 도축금지등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번식기반유지를 위하여 현행 실시하고 있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다산장려금제도의 확대실시등 현실적이고 신축성 있는 지원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움직임도 한우산업 발전방향과 함께 하여야 한다.

▶둘째는 산업으로서 살아남기 위하여 한우만이 보유하는 품질 경쟁력을 키운다.

비육우 가격이 경쟁국에 비하여 2 3배 가까이 높고 고기의 품질마저 좋지 않다면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가. 고기량에 의한 생산성이 뒤진다면 고기의 품질로서 대처해야 한다. 지역별, 권역별로 한우고기의 독특한 품질관리를 '브랜드화'하여 수입쇠고기와 차별화 하여야 한다.

소비자에게 수입육보다 질이 좋고 안전성이 높은 고기를 생산공급하여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소비자는 값싸고 질이 좋은 상품을 원한다. 생산자는 품질이 좋을 경우 가격에 구애받지 않는 소비계층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우고기는 쇠고기중에서 으뜸이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셋째, 도체등급에 따른 부위별 냉장판매제도의 정착이 뒤따라야 한다. 즉, 쇠고기 등급별 부위별 차별화 판매가격을 정착시켜 고급육부위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육우(젓소)나 수입고기와 차별화 하여야 한다.

LPC 등을 이용하여 등급별 부위별 경매등 일정 기간 쇠고기의 숙성을 의무화하고 소매점포의 냉장체계 시설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냉장 시스템의 하나인 소형의 김치냉장고 같은 규모가 적고 소형의 육전용 냉장고 등을 개발한다.

▶넷째는 우량한 밀소나 고급육을 생산한 생산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가격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자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가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받도록 차별화된 송아지 시장(예

: 등록우시장등)을 개설하여 제값을 받도록 보장하여주고, 비육우는 품질에 따라 도체가 고가로 경매되는 시장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송아지의 거래시는 혈통증명서를 제시하는 등록우시장을 개설하고, 비육우는 생체거래를 폐지하고 도체등급에 의한 지육거래를 정착시킨다.

▶다섯째는 양심있는 농민 스스로가 운영하여 직관할 수 있는, 즉 농민이 주체가 되는 자발적인 유통체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모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양축가 직영의 한우전문점의 확대와 동시에 이의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과 대책을 수립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한우전문점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조합의 통폐합으로 한우업종조합의 설립에 의한 한우고기 유통전문점의 육성도 기대된다.

▶여섯째, 한우전문점의 최대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는 저급육 처리는 물론 지역별, 경제권역별로 서로 다른 소비형태를 위하여 숙성과 부분육 분할 경매제도를 할 수 있는 유통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곱째, 암소고기의 선호로 암소의 도축이 확대되어 번식기만 붕괴우려가 있으므로 암소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송아지의 거세를 적극 장려하여 고급육생산을 앞당기고, 이제는 개량과 연계된 합리적인 암소비육방법도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등급판정의 불익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1~2산 암소의 조기도축은 우량 밀소생산차질과 국가자원의 낭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체등급 평가기준의 완화와 3산이상의 암소고기 품질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덟째, 수입쇠고기 전문점 폐지요구에 따른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는 한우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서의 브랜드화가 근본적인 대책이나 정착하기에는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단기적으로 둔갑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매장에서의 원산지표시 이행 감시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및 소매단위의 부위별 등급별 소포장제의 도입이 요구되며, 불이행시에는 과도한 중벌이나 벌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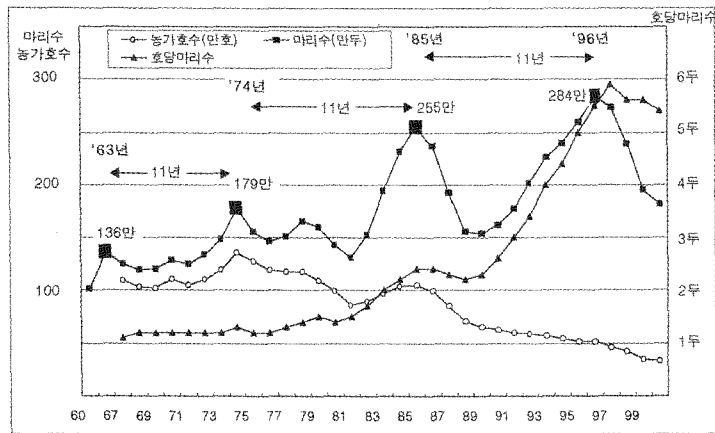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무릇 모든 산업은 기술과 품질경쟁이다. 축산업에서의 기술과 품질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기술의 개발과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우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종자라고 입증되었다 하여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품질의 한우고기를 생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욕구에 맞춰 새로운 종자를 발굴할 수 있는 개량체계와 기술을 계속 개발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량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모든 한우를 혈통을 알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경제형질의 기록을 수집하는 기본체계의 확립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기초 없이 첨단 기술의 접목은 존재할 수 없다.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한우산업도 닭, 돼지산업과 같은 외국 의존도의 산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생산성의 향상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유전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종자의 개량에서 가능한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림 1] 연도별 한우사육두수 추이



[표 10] 한국, 미국, 호주, 일본의 비육우 및 송아지 1kg당 산지 가격

구분	단위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고
비육우	1 kg	4,976	1,653	1,543	9,766	500kg/두/99년
	1마리	2,488,000	826,878	771,678	4,883,350	
송아지	1 kg	7,314	2,084	1,337	14,138	140kg/두/99년
	1마리	1,024,000	291,878	187,227	1,979,452	

\* 자료: 축협중앙회 축협조사월보(2000. 3월호)  
 일본송아지 280kg/두 ¥376,000 기준. 일본성우는 도체율 60%로 환산.  
 환율: ¥100 = 1,052.90, AU \$ 1 = 717.84 (2000. 1.31), US \$ 1 = 1,142 ('99.12.30)

## (2) 전망

한우산업의 전망은 밝다. 하지만 신용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은 발전이 가능할지 모르나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 할 수 없다. 미래 한우산업 발전은 한우고기의 유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번 11년간의 주기적으로 겪는 사육두수의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한우 파동은 한우의 번식주기에 맞물려 있다. 주기적인 파동의 흐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한우사육 통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우사육두수의 증감에서 본 한우사육두수의 감소는 2000년말 또는 2001년초에는 감소가 증가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1)

한우는 고부가가치육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직도 대부분의 농민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고부가가치육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왜 생산하여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아직까지도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거세를 장려하여 거세장려금을 주어도 기피하는 실정이다. 한우를 부가가치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지 생산가격으로 비교 할 때 3~5배정도 열세이다(표10)

그리고 아직도 한우산업 살리기 방안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제는 농민과 더불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서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과 기술개발에 전념하여야 할 때이다. 하루빨리 한우사육농가는 번식이든 비육이든 관행적인 한우사육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한우고기의 고부가치화에 의

[표 11] 전체대비 한우의 도체등급별 출현두수

구 분	한 우										
	1999년 1. 1 ~ 12. 31					1998년 1. 1 ~ 12. 31					
성 별	암	수	거세	계	출현율	암	수	거세	계	출현율	
도체 등급	A1+	5,056	234	2,887	8,177	0.9	3,488	369	2,213	5,980	0.6
	A 1	17,279	3,120	5,608	26,007	3.0	10,606	4,600	4,421	19,627	2.1
	A 2	31,773	44,773	6,362	82,908	9.5	22,006	53,003	5,101	80,110	8.5
	A 3	22,803	235,979	2,113	260,900	29.9	18,101	278,588	2,233	298,922	31.5
	B1+	24,315	127	3,106	27,548	3.2	20,002	288	868	2,848	2.5
	B 1	85,000	1,233	6,775	93,008	10.7	74,674	2,983	1,698	7,512	9.0
	B 2	161,120	11,040	6,968	179,118	20.5	142,840	20,429	1,408	15,127	18.1
	B 3	118,058	28,866	1,746	148,670	17.0	122,680	67,979	279	19,343	20.5
	C1+	2,340	7	608	2,955	0.3	1,934	46	868	2,848	0.3
	C 1	5,736	78	1,192	7,006	0.8	5,497	317	1,698	7,512	0.8
C 2	13,050	273	838	14,161	1.6	12,925	794	1,408	15,127	1.6	
C 3	11,428	857	124	12,409	1.4	15,716	3,348	279	19,343	2.0	
D	9,046	1,151	20	10,217	1.2	20,296	3,034	19	23,349	2.5	
계	507,000	327,738	38,347	873,094	100.0	470,765	435,778	40,967	947,510	100.0	
도체 등급	1+	31,711	368	6,601	38,680	4.4	25,424	703	6,513	32,640	3.5
	1	108,015	4,431	13,575	126,021	14.5	90,777	7,900	14,188	112,865	11.9
	2	205,943	56,086	14,168	276,197	31.6	177,771	74,226	14,790	266,787	28.1
	3	152,294	265,702	3,983	421,979	48.3	156,497	349,915	5,457	511,869	54.0
육량 별	A	76,916	284,106	16,970	377,992	43.3	54,201	336,560	13,878	404,639	42.7
	B	388,493	41,266	18,595	448,354	51.3	360,196	91,679	22,817	474,692	50.1
	C	32,554	1,215	2,762	36,531	4.2	36,072	4,505	4,253	44,830	4.7

[표 12] 일본의 연도별 거세우 품종에 따른 도체등급별 출현율

(오사카 식육시장)

		화 우					F 1					젓 소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1995	1996	1997	1998	1999	1995	1996	1997	1998	1999
두수(단위:천두)		275	272	281	275	277	56	46	62	79	94	303	286	246	230	226
육 질 등 급 비 율																
피니에비계급	5	18.2	18.4	17.6	17.0	14.9	2.5	2.4	2.0	1.6	1.2	0.1	-	-	-	-
	4	28.4	30.9	31.6	30.6	29.1	13.1	14.8	14.9	13.2	11.0	1.4	1.2	0.9	0.6	0.3
	3	32.3	33.9	33.1	32.3	32.7	43.2	46.4	46.7	45.4	43.3	29.4	28.8	26.6	22.1	18.3
	2	20.2	16.2	17.1	19.5	22.5	39.9	35.2	35.2	38.6	43.2	67.3	67.3	69.7	74.0	77.5
	1	0.9	0.6	0.6	0.6	0.7	1.3	1.1	1.1	1.1	1.2	2.8	2.7	2.8	3.3	3.9

\* 자료 : 일본 '격부협회' . 2000.6.16

[표 13]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별 등급별 출현비율과 평균

구분	회수	제1회(1993)		제2회(1995)		제3회(1997)		제4회(1999)		'99년도 전국거세우평균	
		두 수	비율	두 수	비율	두 수	비율	두 수	비율	두 수	비율
육 질	1	77	30.55	87	74.36	109	64.88	153	72.86	20,176	52.61
	2	7	19.44	28	23.93	37	22.02	51	24.29	14,168	36.95
	3	18	50.00	2	1.70	22	13.10	6	2.85	3,983	10.39
	소계	36	100.00	117	100.00	168	100.00	210	100.00	38,347	100.00
육 량	A	12	33.33	5	5.27	22	13.10	124	59.05	16,970	44.25
	B	17	47.22	96	82.05	109	64.88	74	35.24	18,595	48.49
	C	7	19.44	6	13.68	37	22.02	12	5.71	2,762	7.20
	소계	36	100.00	117	100.00	168	100.00	210	100.00	38,347	100.00

\* 전국 평균은 등외 20두 포함한 비율임.

한 차별화 방향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표 11, 12, 13).

일본과 같은 고급육 소비시장을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수출산업으로서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우가 건너가 일본소가 되었다고 한다. 똑같은 재료의 음식이라고 해서 맛이 같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쇠고기의 재료인 밀소의 자질은 더욱 중요하다. 그들의 꾸준한 번식기반에 대한 정책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화우개량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우수한 자원인 한우를 생산하고, 기르는 기술을 우리 농민에게 전수하

고 그렇게 하여 생산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이웃의 거래시장을 개척한다면 한우는 어떤 축산업보다도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수입개방의 파고가 밀어닥치기 이전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품질 차별화된 한우고기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소비자가 한우고기에 익숙해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충분히 숙성된 진짜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냉장상태에서 구입하여 소비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과 등급제의 강화 등으로 우리 한우만이 생산할 수 있는 우수 고급육으로 생산경쟁력을 키운다면 한우는 한우산업으로 차별화 되어 살아남을 것이나 현재와 같은 유통체제하



에서의 소비자 불신이 계속된다면 결국 한우도 산업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릴 것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우전문점은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신용을 토대로 하는 유통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등급제에 따른 부분육의 판매로 부위별, 등급별에 따라 한우고기도 그 맛이 다르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모처럼 열기가 일고 있는 한우전문점이 소비자가 불신하는 정육점 정도로 전락하여 버린다면 한우전문점의 신용은 물론이고 한우산업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소비자는 냉정하다. 생산자는 늘 소비자의 입장에서 값싸고, 질 좋고, 안전성 있는 쇠고기를 생산

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오는 두수의 증식에 따른 한우가격의 파동은 누구나가 예측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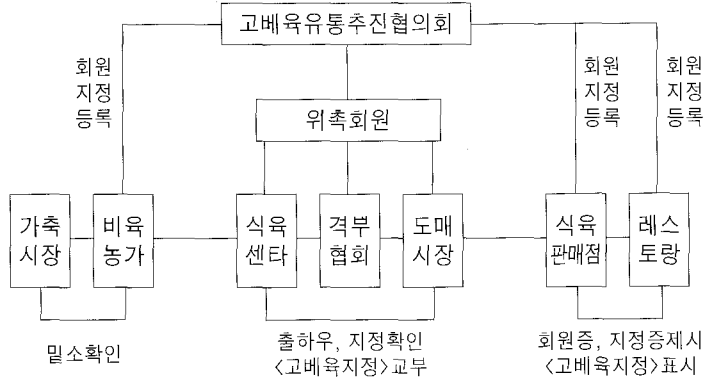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앞으로 한우를 산업으로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쇠고기의 전면개방을 불과 반년정도 놔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한우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차별화된 한우고기의 생산에 달려 있다. 너무 단편적인 안목에서의 한우산업을 바라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한우고기의 객관적 차별화를 위해서는 종축개량의 기반에서 우수송아지를 생산하고,

[표 14] 지역별 한우브랜드명

지 역	브 랜 드 명
서 울 (8)	목우촌, 해피델리, 미원한우, 신세계한우, 한우리, 한우일번가, 쇠고기꼬마왕자, 한우방
대 구 (2)	팔공상강우, 누렁이한우쇠고기
인 천 (1)	인천삼우
울 산 (2)	울산한우, 한약한우
경 기 (13)	개군한우, 하이마블뜨레한우, 한우600경기광주, 안성맞춤한우, 효자촌한우, 가평한우, 수원목장한우, 한웅, 한우맛드림, 샘재골한우, 고봉산한우, 한우성, 양주골한우
강 원 (6)	횡성한우, 대관령한우, 정선황기한우, 양양한우, 애우, 흥천늘푸름한우
충 북 (12)	동해암소속살초정한우, 업청한우, 중앙탑한우, 달래강한우, 어우촌한우, 박달재한우, 속리산한우, 토우촌, 연풍청정한우, 설성한우, 소백산관광목장, 영동포도한우
충 남 (9)	농수한우, 청정한우, 은양청정한우, 고향한우, 한우약소, 장군비프, 외촌한우, 흥동한우, 도원한우
전 북 (3)	익산황토우, 장만산청정한우, 장수청정한우
전 남 (13)	나주감영자한우, 돌산상강약우, 담양죽향한우, 담양청죽골한우, 보성녹우, 화순백아산한우, 장흥영지한우, 강진맥우, 그린한우, 해남평골으뜸한우, 영암무화과한우, 무안양파한우, 함평천지한우,
경 북 (25)	영일만청청우, 새재한우, 건천단석산한우, 황우촌, 제비원, 이명호침누령소, 안동한우원, 안동전통한우, 축우촌, 선비촌한우, 안동학가산한우, 소백한우마을, 참술우, 갑장육, 농우마설, 문경한우, 맥반석청정한우, 이형택암소식육식당, PIS순수한우, 의성마늘소, 참우, 봉화화약우, 울릉약소, 경주버섯한우, 죽정한우
경 남 (11)	밀양참대추한우, 가야산한우, 원동한우, 창녕양파한우, 화전한우, 하동술잎한우, 합천황토한우, 사천정동한우, 연양한우, 울산한약우, 자굴산한우
계	106개소

[그림 2] 고베육인정의 유통 조직도



\* 고베육유통추진협의회자료

생산된 수송아지를 거세하여 유전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비육생리에 따라 사육하는 것만이 지름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비육농가들의 자발적 모임인 한우능력 평가대회에 출품된 상당수의 한우고기는 일본의 대표적 브랜드인 고베비프, 마스사까비프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우가 국내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한우산업의 장래는 밝다 그런 만큼 할 일이 많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우산업을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관적인 한우고기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우고기도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창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획득하여 비싸더라도 맛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한우산업은 산업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얼마든지 한우산업은 전망이 밝다. 전망이 밝은 만큼 해야 할 일도 많다.

<참고자료>

1. 강수원, 정연후, 손영석. 1991. 포유모우의 산유량에 관한 연구. 한축지 33(1), 85~93.

2. 김희석, 정선부, 이근상, 최광수, 설등섭. 1980. 한우와 Beefalo 교잡에 의한 잡종이용시험. 축시보고 제22집(축산,가위). 1980. 8~13.

3. 나기준, 김희석, 정선부, 이근상, 이길왕. 1981. 한우와 유우 교잡시험. 제1보. 한우와 홀스타인 교잡종 숫송아지 발육비교. 축시보고, 제23집.(축산,가위). 1981. 48~54.

4. 나기준, 홍성구, 이근상, 김강식. 1988. Limousin 1대교잡종의 발육 및 사료 이용성에 관한 연구. 축시논문집(축산편):30(2)

5. 농림부, 축산기술연구소, 축협중앙회. 1996. 가축개량관련자료.

6. 이근상. 1993. 육우연구논문집.

7. 이문연. 1998. 한국축산발달사. 379~391

8. 임종우, 유제현. 1983. 한우의 산유량 및 유조성에 관한연구. 한축지 5:80~94.

9. 축산시험연구보고서. 1994. 한우의 번식 및 사양기술에 관한 연구.

10. 축산시험연구보고서. 1995. 한우개량연구.

11. 축산시험연구보고서. 1996. 한우유전능력개량연구.

12. 축산연감. 1997. 한육우.

13. 축협중앙회. 1998. '97년한우개량단지사업보고서.

14. 한국종축개량협회. 1999. 1999년도 한우회원농가 개량교육.

15. 한국종축개량협회. 2000. 한우생산기반 안정사업(안)

16. 홍성구, 나기준, 이근상, 김내수, 이택원. 1988. 한우와 육우교잡종에 대한 산육 및 사료이용성에 관한연구. 한국축산학회지. 30(1)